

Vol. 20 2011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Mission Statement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사명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NE) was established on August 18,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e goals of the League are to encourage active Korean-American participation in American politics, to educate Korean-Americans about their righ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s American citizens, to enhanc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merica, and to contribute unique Korean elements to American society. To this ends, KACL has performed the following activities:

1) Voter Registration Drive within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The League has been working to increase voter registration by writing articles in the local news media, sending mail to the Korean-American citizens in New England, and employing various other methods.

2) Assisting Preparation for Citizenship Application:

The League has published the "Citizenship Test Guidebook" in both English and Korean, provided free classes on the citizenship test, and sponsored written tests on U.S. government and history in both English and Korean. Also the League has provided free Citizenship Workshops twice a year since 1997.

3) Supporting Political Interns:

KACL has supported Korean-American political interns who would be interested in pursuing political careers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opportunities to work in Senator's and governor's offices.

4) Endorsing and Supporting Politicians:

KACL has endorsed politicians who support the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William Clinton, Edward Kennedy, William Weld and Scott Harshbarger.

5) Lobbying:

The League has lobbied for and against passage of laws affecting rights of Korean-Americans, including a letter-writing campaign to the U.S. President and Congressmen against passage of the welfare and immigration reform bill.

6) Public Relations Campaign:

KACL has publicized its activities to both Korean-Americans and non-Korean-Americans by publishing journals and newsletters, writing articles, placing advertisements in local news media, and direct-mailing to Korean-Americans.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Published by: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Tel: (508)962-2689
Fax: (781)341-8239

<http://www.KACL.org>

● Publisher:
Kyunghae Kay Lee

● Editorial Board Advisor:
Yang Kil Kim
Moon So Kim
Song-Kun Kim

● Editor-in-Chief:
Kee-Young Lee

● Editors:
Sang Chul Shin
Jae B. Park
Aaron JW Chang

● 발행처: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

● 발행일: 2011년 3월 31일

● 발행인: 이경해

● 편집고문: 김양길, 김문수, 김성균

● 편집장: 이기영

● 편집위원: 신상철, 박재범, 장정우

| | |
|--|----|
| Mission Statement/ 뉴 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사명 | 4 |
| 발간사/ 시민 협회의 성취와 당면 과제 KACL's Successful Achievement yet facing the Challenges | 6 |
| 격려사/ Congratulatory Message | 9 |
| 발간사/ 시민 운동에 동참합시다!! Marching together with KACL | 10 |
| 인턴 보고/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정치의 발견 Discovery of My Perspective in American Politics | 12 |
| 인턴 보고/ 인턴쉽을 통해 꿈을 구체화하는... Clear Vision: Attained through Internship | 16 |
| 인턴 보고/ Contributing to Change as a Citizen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 20 |
| 역대 정치 인턴 명단 / List of Previous KACL Political Interns | 22 |
| 2011년 시민 협회 주요 행사 일정 및 주요 사업 계획 KACL Events and Major Activities | 23 |
| 2011 Summer Internship Program | 24 |
| 2011 Summer Internship Program Application | 25 |
| 2010년 시민 협회 활동보고 | 26 |
|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장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 28 |
|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 30 |
| KACL-NE Financial Statement 2011년 수입 · 지출 예산 | 32 |

이경혜 뉴잉글랜드 한인미국시민협회 회장은
1971년 도미하여 1974년 하와이의 Chaminade University에서 사회학 학사,
1976년 Boston College에서 사회학 석사,
1980년 Boston University에서 Rehabilitation Counseling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New England 한국학교 이사, Bentley Family Executive Committee Member,
Advisory Board at Asian Civic Association, 남편과 함께
Lee Associates(Real Estate and Brokerage)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협회의 성취와 당면 과제

KACL's Successful Achievement yet facing the Challenges

●회장/ 이 경 혜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협회를 위해 아낌없이 지지해 주신 김성군 이사장님, 고문들, 이사님들과 임원, 그리고 시민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협회 창립 때부터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셨던 김명기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새로운 곳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과 보람된 삶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또 KACL 회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기영 편집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직을 연임하면서 그동안 시민협회의 성공적인 발전과 성장을 바라보면서 새삼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계속 추진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의 시민협회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한인단체들, 아시안 단체들과 협조해서 시민협회의 Visibility를 향상 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무료 시민권 워크샵, 정치 인턴 모금 만찬 등의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Song Kim, Chairman, the advisors, the board members, the officers and all KACL members of their time, effort and support during the past year. I like to acknowledge our Executive Director from the inception of KACL, Myung K. Kim, for his tireless work, involvement and

support and we all will miss him since he is relocating. I also like to give special thanks to Mr. Kee Young Lee, editor-in-chief of the KACL Journal who went to Korea to publish the Journal last year.

As I begin my second term as president, I am inspired and touched by the success KACL continues to achieve and our progress in a number of important areas. Though the challenges are still many for KACL, we are confident that we can continue our missions to fulfill our goals.

Let me share the activities we have engaged in for the past year:



A. 시민권 워크숍

많은 한인 교인들이 문의 전화를 하였고 지난해에는 시민권 신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리조나 이민법의 영향으로 안정적인 신분을 취득하려는 움직임, 또 샘윤의 성공적인 광역시 의원 확보, 보스턴 시장 출마 경험, 그의 확고한 미래의 정치인으로서의 계획이 한인 교민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준 것, 연방 상원 의원 Edward Kennedy 를 이어서 공화당의 Scott Brown 의 승리로 몇십 년의 전통을 깨 메사츄세츠 주선거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40-50대 젊은층의 신청자가 증감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는 한인 교민들이 정치면에 더욱 관심을 보여주고 참가한다는 긍정적인 변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B. 정치 인턴 장학사업 모금 만찬

지난해 13번째 정치 만찬 모임에는 최초 한국계 버지니아주 주하원 의원인 Mark Kearn 이 특별 연사로서 이 행사를 빛내 주었습니다.

2010년에는 총 5명의 시민협회 인턴을 메사츄세츠 주지사, 뉴 햄프셔 주지사, 또 존 케리 연방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인턴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었으며 뉴 햄프셔 주지사 사무실에서는 매년 인턴을 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정치 인턴들이 시민협회 총회, 시민권 워크숍, 선거 유권자 등록 안내, 또 APIA Vote 주최 정치 인 만남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준 것입니다.

C. 전국 아시안 투표권 유권단체와의 협력

APIA VOTE 는 미주 아시안들의 유권자 등록 및 투표를 진작시키는 단체로서 아시안 민권 운동가이자 사무총장 Leverett Wing 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민협회에서는 주지사 투표를 충선을 앞두고 한인 시민권자들의 유권자 등록을 돕기 위해 "안내 편지"와 "유권자 등록 카드" 그리고 "등록 안내서" 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정치 인턴 학생들이 자원 봉사자가 되어서 전화 연락으로 유권자와 직접 통화해서 등록을 도왔고, 그 결과 많은 유권자 등록 안내서를 수집하게 되었는데 이 활동은 APIA VOTE 와 협력하여 실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치인턴 동문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연락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여전히 시민 협회의 큰 과업이자 희망 사업입니다. 저희가 배출한 정치 인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좋은 직장 and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시민협회의 존재와 그들의 인턴 경험을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는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A. Free Citizens Workshop:

I have never received so many phone calls for inquiry and information. The trend was more younger generations like 40's and 50's applying for the citizenship and this might be resulted from a combination of the impact of Arizona Immigration Law, Sam Yoon's Mayor candidacy in Boston and Election of Senator Scott Brown. This is certainly the positive progress we have been experiencing.

B. Political Intern Fundraising Dinner Event:

Our keynote speaker was Mark Kearn, the First Korean-American elected as a Virginia House Delegate and shared his political experience with us. We are proud of him and having him as a great role model for our children. We have selected 5 students, 3 college students and 2 high school students and arranged for the college students at th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and Senator Kerry's Office and one high school student at the local hospital to learn about the Administration. We also appointed one high school student at the NH Governor's Office and this is the second year we have placed a high school student. I am proud to point out that our college interns were proactive and got actively involved with the Annual Conference, Free Citizens Workshop, Mail-in Voter Registration follow up and "Faces of Leadership's Massachusetts" by APIA Vote.

C. Asian Pacific Islander American Vote (APIA Vote):

We have been working closely with APIA Vote which is the only national institution focused on voter mobiliz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of th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AAPI) community. This non-partisan organization promotes the fuller electoral participation AAPIs at the national, state and local levels. In collaboration with APIA Vote, KACL sent out 300 "Mail's n Voter Registration Form" to Korean-American citizens. We also did follow up with our interns and it had brought out the positive outcome with many returned registration forms.

Organizing the Interns Alumni Network and development of the Support System will be an ongoing task and this is still our challenge. We know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심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 정치 인턴만찬의 초대 연사는 시민협회의 초대 인턴이고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Thomas Kim 입니다. 그의 역할이 시민협회 인턴 동문회를 지도하는 좋은 밑받침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매해 뉴잉글랜드 한국 학교 협회에서 글짓기 대회를 주최하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상을 탄 고급 학년들의 작품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이글을 읽고 나서 우리 아이들 뿐 아니라 성인들까지 겪고 있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미국에 살면서 한인으로서 한국 말을 하고 한국 문화가 몸에 베인 우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시민 협회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한인들을 대표하는 한국계 상원의원, 주지사, 시장 등등의 정치인들이 연방 정부, 주지사, 지방정부에 많이 배치해 있다면, 또 법원, 언론계, 유명인

TV,영화 스타들, 교육계, 금융기관들 중에서 중요한 직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얼굴들이 낮익게 많이 보였다면,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에 중점을 두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2012년에 이행해질 대통령, 상원의원들의 선거로 지금부터 정치인들은 바빠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선거에 꼭 참가하셔서 나의 권리를 실행하시고,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거주하는 타운/시청에 등록해서 유권자 자격을 확보하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시민 협회의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시민협회 활동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this will take time: to collect the past interns' s information and to contact them and to bring them back to KACL. We want them to feel proud of KACL's missions and their internship experience which can lead them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the public services in the future. Thomas Kim, the first intern, will be our keynote speaker at this year's Political Intern Fundraising Dinner event. He is a powerful lobbyist in WA, D.C. and we hope he can be the basic source to ignite the fire toward the Interns Alumni Network.

I have had the opportunity to read the prized essays of the children entered the competition sponsored by NE Korean School Association last year and realized the existence of our children's identity issue, growing in America with Korean parents, different values and cultures. This identity issue encompasses all age, from the primary school to us, the adults. The title says all: "Who am I? Am I a Korean or an American? Then, I thought of this: what if these children see many Korean-American politicians at the local, state or national level, more famous figures in every area such as legal, journalism, entertainment, school administration, finance, name just a few, then they may have felt more comfortable and see many role models with the same color of face. I know we cannot solve this issue in a short term period. Then, what can we do about this? What can KACL play a role with this?

Next Year will be busy for the President's as well as Senators' and Congress election. I urge those who have not yet registered to the City or Town they reside to register to vote, as an American citizen, so you can cast a vote in November, 2012. Without voting, we are forfeiting our rights to be a part of American Political System as a citizen. I also urge you to join KACL to promote our civic rights in the American Political Arena.

Kyungghae Kay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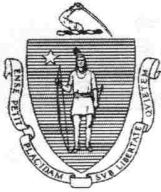
1971-1974: B.A. Sociology from Chaminade University, Honolulu, 1976: M.A. Sociology from Boston College, 1980: M.S. Rehabilitation Counseling from Boston University. A Board member at NE Korean School, Bentley Family Executive Committee Member. Lee Associates (Real Estate Brokerage) principal with husband.

Congratulatory Message

격려사

● 매사추세츠 주지사/ 드वाल L. 패트릭

▶ Deval L. Patrick/ Governor, Massachusetts



DEVAL L. PATRICK
GOVERNOR

TIMOTHY P. MURRAY
LIEUTENANT GOVERNOR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EXECUTIVE DEPARTMENT

STATE HOUSE • BOSTON, MA 02133

(617) 725-4000



March 2011

Dear Friends:

On behalf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I congratulate the Journal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 valuable community resource, on its seventeenth year of publication.

The Journal provides essential resources and services to the Commonwealth's vibrant Korean community. By providing resources promoting community involvement and citizenship, the League strengthens the Bay State and the bonds between our cultures.

I applaud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and thank them for being actively engaged within their community and Massachusetts.

Best regards,

김성군회장은 성균관대학교, 마사추세츠 주립대를 졸업하고 Suffolk Univ. Law School을 졸업한 후 현재 김성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988년부터 지금까지 주대법원에서 한국어 번역 및 통역관으로,
현재 Mass. Asian-American Commission의 커미셔너로 봉사하고 있으며,
뉴잉글랜드 한인회보와 보스턴 코리아에 십 여년에 걸쳐 법률칼럼을 연속 연재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자기술협회, NE한국학교 및 노인대학에서 여러차례 법률강좌도 담당한 바 있다.

시민 운동에 동참합시다!! Marching together with KACL

●이사장/ 김 성 군

KACL 이사장으로써 이번 20호
저널출간을 진심으로 축
하드립니다.

KACL은 지역단체 봉사, 소수 한인
의 정치 참여를 돕고 우리의 정치력
신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을 돌아보면, “정치인턴 장학
사업”을 통하여 세명의 대학생 인턴
을 배출하였고, 이번 저널에도 기재
되었듯이 성공적이고 의미있는 인턴
ships을 끝내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

보름 (브랜다이스 대학)과 송테보라 (스미스 대학)양은 매사추
세츠 주지사 사무실에서, 그리고 유학주 (뱌슨 대학)군은 존 케
리 연방상원위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리
고 이미 수백명의 시민권자를 배출한 “시민권 취득 워크샵”을
통하여 올해에도 영주권자 30여명이 시민권 신청을 끝내었습니
다. 올해에는 특별히 많은 학생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두드러졌
고, 시민권 취득 워크샵은 물론이고, 올해 시민협회가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펼친 “유권자 등록 캠페인”에는 약 13명의 대학생이
자원봉사 하였습니다.

APIAVote가 일차적으로 저희 시민권자 데이터를 통하여 약
300가구에 우편으로 유권자등록지를 우송하였고, 그 다음 우리
의 자원봉사원이 각 가정에 모두 전화 캠페인을 벌여, 더 많은



It is an immense pleasure and
great pride to write as a
chairperson of KACL, particularly in
this 20th anniversary KACL
Journal. KACL is a platform of
community services, civic
engagement by the Korean-
American minority, and uplifting
political empowerment of our
citizens. Looking back at the year
2010, KACL had harvested the
fruits of our time-honored activities:

first, through our scholarship funds, our three (3) political
interns successfully finished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Boreum Lee (Brandeis University) and Deborah
Song (Smith College) at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and Hanju Ryu (Babson College) at US Senator John Kerry’s
Office. Second, this year as well KACL volunteers continued
to assist over 30 US Permanent Resident to apply for the
Citizenship via “Free Citizenship Workshop”. Third and most
importantly, KACL has launched “Voter Registration Drive”
for the first time in a systematic manner. In partnership with
APIAVote, our many volunteers mailed VR Form, followed
by phone-banking almost 300 households to respond.

한인유권자 등록을 위해 혼신을 다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경기 침체기에는, 미래보단 현재의 생활에 급급하여 정말 중요한 사업을 뒤로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정치참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힘써 정치참여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와 미전국의 정치에 관심과 참여가 없는 우리의 정치력신장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권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한인 정치인과 지도자를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걸림돌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란 KACL미션을 성취하기위해, KACL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회에 만연한 “정치 무관심”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더 많은 자녀가 정부, 공공분야, 선거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미국사회의 정치력신장은 적어도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인시민협회의 활동이 이러한 정치력신장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 확신합니다.

올해에는 지난 20여년을 KACL사무총장으로써 “시민운동”이란 투철한 확신을 가지고 불철주야, 동분서주 자신의 혼신을 모두 다 바치신 김명기 사무총장님이 타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분의 봉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떠나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박재범씨가 선임되었고, 지난해부터 신임이사님으로 추경석, 안성완, 양미아, 한문수, 송현미, 르브랑크 옥경씨가 봉사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침체경제에도 저희 KACL저널에 광고를 통하여 기부하신 광고주 여러분: 그리고 저널의 총감독을 맡으신 이기영 이사님, 더욱더 중요하게는 저희 단체를 사랑하셔서 어려운 시민운동에 동행하시는 시민협회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Song Kun Kim, Chairperson, graduated from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Suffolk Univ. Law School. He was admitted to the Massachusetts Bar in 1994; he now runs his own law practice in Stoneham, Massachusetts. He has been working as a Court Korean/English Interpreter at Mass. Supreme Judicial Court since 1988. He also serves APAAC as a board member, and Massachusetts Asian American Commission as a Advisory Board Member. He has contributed law columns regularly to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for many years, and delivers several lectures on immigration and personal injury laws for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Looking at the present economic downturns I see, it is true of many to sideline with despair. In this recessionary mood, our political cause seems to become less important in our daily life. But I believe that nothing gets better without proactive involvement for our future Korean-American society. It is time ever more to use our resources and create a world of activism to bring positive and progressive change in our Korean-American political landscape. We must understand that by participating more in American politics, local and national, we help not only us but also our Korean-American children aspiring to be de-facto leaders in this country. It is upon us to be a stepping stone for our future generation. To sit idle without action is disservice, and we become a stumbling block for our kids.

On our mission of KACL, I will urge you that you participate and learn more about KACL activities. We have to commit ourselves to use our energies to change the pervasive sense of indifference in the American politics. We need more numbers of Korean-Americans working for governments, public sectors, and elected positions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we have to mobilize our political voices by voting and also by political donations. There are many ways KACL can do for the best of our future generation. KACL can be a greater asset and facilitating organization in empowering the Korean-Americans in New England area.

KACL Board of Directors has undergone some changes this year. We wave farewell to Michael M. Kim, having served as Executive Director for over two decades with his immense dedication, and I deeply admire his compassion, conviction, and exemplary work for KACL. In his place, we welcome Jae B. Park - newly elected Executive Director. As incoming board of directors, we also welcome Kyeongseok Choo, David Seongwan Ahn, Mia Yeung, Moonsu Song, Elaine Hyunmee Song, and Ok Kyung LeBlanc. I am sure we will benefit from their enthusiasm, qualifications, and commitment.

We must express our gratitude for the support that our journal advertisers have provided even through this tough economy. I also thank Keeyoung Lee - our editor-in-chief, and without him have we no journal. Besides and most of all, I appreciate our KACL members' continuous support to walk through together for our KACL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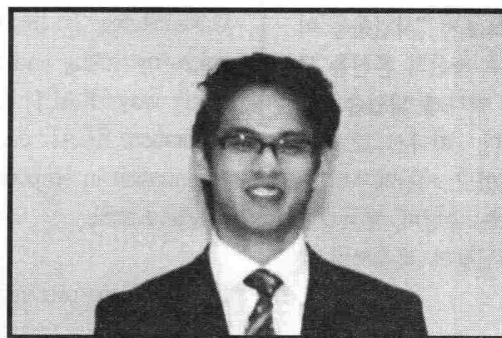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정치의 발견

Discovery of My Perspective in American Politics - Internship Experience at Senator Kerry's Office -

by Andrew HanJu Ryu

처음 존 케리 상원의원 사무실 인턴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을 때는 사실 믿겨지지 않았습
니다. 존 케리 상원의원은 미국에서 대
통령 후보로써 대선까지 나온 인물이
고 또한 현재 외교정책 위원장으로
상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
치인입니다. 인턴십 전에 그동안 관
심 있던 정부와 비즈니스의 상관관계
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설
레고 한편으로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의 추천을 받
은 인턴으로서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걱정되
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장점들을
leverage하여 존 케리 상원의원 사무실에 자산이 될 수 있을까 깊
게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여름 5월에 두 명의 policy advisor와 인
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
변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턴 담당자 분께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해보고 싶냐고 물어 봤을 때 제 전공인 경영학 지식을 살릴 수
있도록 금융 및 회계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금, 사회보장연금, 은행업무 등 금융문제를 담당하
는 Lesley Feinberg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상사는
Massachusetts 주에 있는 유권자들의 금융, 세금, 사회보장연금
등의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해주고 유권자 대신 관련 기관들에



게 연락을 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 덕분에
public sector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습
니다.

저의 대학교 수준의 지식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
서 지역사회에 보다 나은 도움을 주
기 위해 금융 관련 주제에 관한 리서
치를 더욱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처음

에 제가 맡게 된 일은 신용도용에 관한 리서치 및 분석 이었습
니다. 지난 몇 년간 신용카드 관련 범죄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인터넷 등등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불법으로 사
용 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또한 자신의 카드가
불법 사용 되었던 것을 알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에 관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에 통과되었던 금융
개혁법안에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거
의 붕괴가 된 2년 후, 이번과 같은 금융 위기가 다시는 초래 하
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하
기 위해 금융개혁법안이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많은
유권자들이 이번 법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유권자들의 사회보장연금 등의 문제 등에 관하여 정책 고문
이 조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음식, 돈, 의료 등과 같은 문제를 사회보장연금 제도를 통해 받는 혜택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 고령자들이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정부로부터 받는 유일한 수익을 받지 못한 채 즉각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이번 8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이 끝나고 존 케리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계속 일을 하게 되었고 유권자들이 housing foreclosure를 통해 겪는 고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9월 달부터 이번에 맡게 된 일은 주택 문제에 관하여 유권자에게 조언을 해주는 정책 고문, Matthew 옆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subprime mortgage 위기가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위기의 주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과 그에 관련된 파생 상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인지한 것은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자들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어 부동산 대출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주택이 압류되어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에 처한 유권자들과 통화를 한 후 그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미디어를 통해서만 들었던 주택위기가 현실로 다가옵니다. 더욱 중요 한 점은 거품 없이 안정된 주택 시장은 경제 뿐 아니라 hedging method 없이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시민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여파로 가장 타격을 입은 이들은 보면 일반 미국 사람들이 기존의 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문제가 빨리 개선, 개혁 되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의 하나는 봉사활동 이었고 이 경험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에서 인턴 담당자 분께서 사회에 도움이 보탬이 되고 사회를 보다 깊게 이해하자는 취지하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름 인턴십을 하면서 봉사활동 단체인 Boston Cares의 지도 아래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JVS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망명자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들의 이력서, 취업 지원서 만드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각국의 망명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턴십의 측면을 넘어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도 참 뿌듯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하기 전부터 정치에 관한 강한 호기심 때문에 공공 부문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미래에 정치권에서 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 관련 이벤트에 참여 하면서 이번 경험은 미국 역사, 정치,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 실제로 Massachusetts주 시민들의 깊은 정치관련 지식에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에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원 봉사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참여 하면서 선거 후보를 투표하는 과정, 캠페인 과정 등을 배우면서 미국 정치에 관하여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개최된 주지사 회의에 자원봉사자로서 일하면서 각 주의 주지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는지 배웠고 이를 통해 각주의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Healthcare reform에 관한 설명회에서는 당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의료개혁에 관하여 보다 더 이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치 사무실의 분위기는 딱딱하고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을 해보니 저의 예상과는 달리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서로 친하게 농담을 주고받고 인턴과도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편하게 다가가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업의 특성상 때로는 유권자들이 겪는 영화하나 나올법한 문제들은 접하면서 엄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할 줄 알고 남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기 전에 사무실에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보스턴 존 케리 사무실에는 두 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미국 백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policy advisor인 흑인 Matthew가 있고 또 다른 한명은 유일한 동양인 인턴인 저였습니다. 그 당시 백인위주의 스태프들을 보면서 역시 정치권은 아직 보수적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여름동안 일하면서 대한민국 출신 인턴으로써 항상 일을 우선시 하고 책임감을 가져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름 프로그램이 끝나고가는 학기에 다시 올수 있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일이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하고 또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저의 진심과 실력은 세상 어디에서나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인생의 한번뿐인 기회를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턴십은 저에게 세상을 넓게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및 회계 부서에서 일하면서 예전부터 믿어 왔던 금융과 정치 쪽은 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하였습니다. 제 전공인 business 지식을 살려 먼저 금융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나중에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정치 쪽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미국 정치계에

한국인이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닌, 미국사회를 이끄는 주류로 거듭나, 앞으로는 존 케리 상원의원과 같은 영향력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나아가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힘이 커질 수 있도록, 이번에 저에게 주셨던 기회처럼,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협회에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The First time

I heard about my acceptance into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at the office of Senator John Kerry, it was hard to believe I would be working for Senator Kerry. After all, he was a Presidential candidate and is still an influential figure as the chairman of the U.S. Foreign Relations Committee. Before the internship, I was quite excited about exploring the correlation between government and business, but at the same time, I was concerned about my competency to represent the Korean community as an intern recommended by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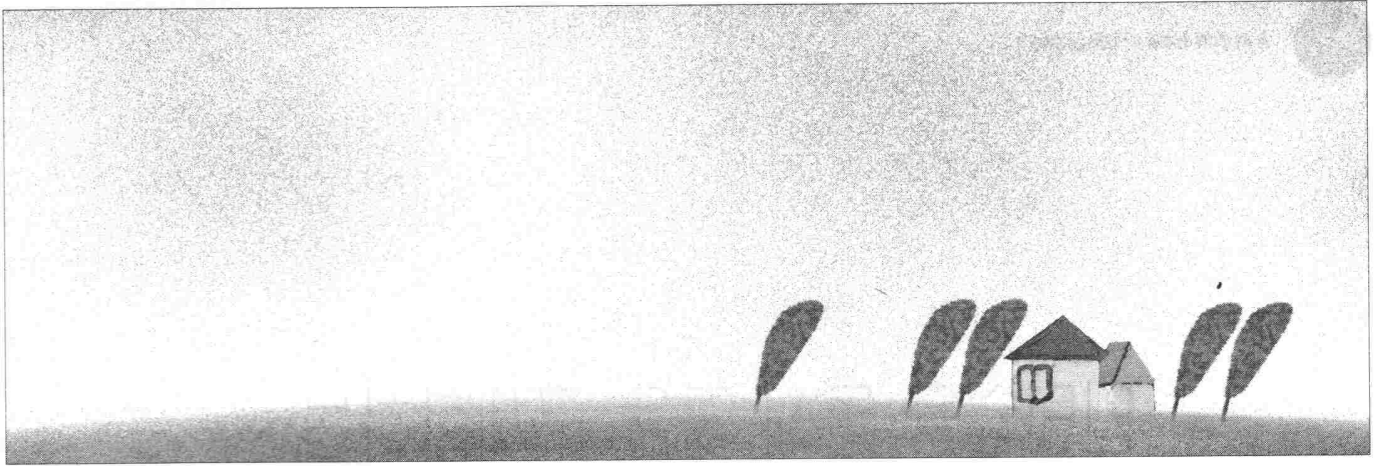
In preparation for an interview, I deeply contemplated about how to leverage my skills to be an asset to Senator Kerry's office. In May 2010, I had an interview with two policy advisors. Following the interview, the Intern Coordinator asked me in which division I would like to work over the course of three months. Considering my interest and major in business, I expressed my desire to work in the Finance & Accounting department, allowing me to leverage my knowledge and background. As a result, I was assigned to Leslie Feinberg who was responsible for all financial problems such as taxes, social security, and banking. Her duties included providing advisory services to constituents in matters of their finance-related issues and expediting the process by contacting appropriate institutions on behalf of constituents, which furthered my interest in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Providing assistance with my limited knowledge was never easy, and it motivated me to conduct extra research on financial topics to better serve the community. My first assignment was to conduct in-depth research and analysis on identity theft. As the rate of credit card-related crimes increased over the past few years, a number of victims had suffered financial losses. In order to minimize damage, I analyzed the procedures and measures, which were necessary for victims to take following the crime. In addition, I assisted my supervisor with regards to the Financial Reform Bill, which had been passed by Congress over the summer. Two years after the nation's financial system nearly collapsed, the bill had been

established to create a structure to prevent another financial crisis and to restore confidence in America's failed financial system. In fact, this bill was at the center of attention across the country. Furthermore,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security by watching how Leslie Feinberg helped constituents with social security issues. The lives of some senior citizens heavily relied 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by receiving benefits to purchase basic necessities such as food, money, and medical care. In the event of misrecognition of their status as a beneficiary, inactive poor persons would lose their only source of income from the government, placing them at risk immediately.

After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in August, I was able to extend my internship period to the fall semester, allowing me to observe the suffering of constituents with housing foreclosure. Therefore, in September, I was assigned to the housing department where my supervisor offered guidance and answered inquiries regarding housing problems for constituents. Since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my interest in housing-related derivative products had furthered, which wa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financial crisis. The first thing I perceived by working in housing was that many people were still living in the face of housing problems. For instance, borrowers, who had been forced out of work, lost their ability to pay off mortgages on their house. As a consequence, they directly faced foreclosure and contacted our office for help. After discussing with constituents in need of financial aid, the housing crisis that I had heard only through the media became a reality. More importantly, I learned the significance of a stable housing market without bubbles not only to the economy but to the lives of hundreds of citizens, being exposed to a high level of risk without any hedging method in place. It was inevitable for the system to be restructured and improved to the extent that average Americans would maintain their places to live.

Throughout the internship program,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vents was the volunteer service and it laid foundations for me to broaden my view of the world. At the orientation, the Intern Coordinator proposed a volunteer program for the purpose of getting back to the society we were serving. Therefore, under the direction of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Boston Cares, the interns participated in a wide range of projects on a weekly basis. Amongst various projects, it was most memorable to provide assistance to refugees from all over the world in finding employment and building careers at JVS Boston. More specifically, we helped them build resumes and fill out job applications. During this period, I was able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world issues by teaching English and having conversations with the refugees. Overall, I felt a great sense of accomplishment by contributing to the community we were serving.



beyond just the business aspects of the internship.

Before my internship, due to my strong interest in politics, I had a desire to learn about the public sector. In fact, I considered politics as my possible career in the future. By participating in political events, my experience had provided me with the opportunity to expand my knowledge of U.S. history, politics, and society. In fact, the extensive political knowledge of constituents of Massachusetts often surprised me. Even before the beginning of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I participated as a volunteer in the 2010 Massachusetts Democratic Convention. While observing the voting process as well as campaigns for each candidate, this convention at a state level had furthered my interest in politics. Moreover, at the 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s annual meeting hosted by Massachusetts in June 2010, I observed how governors approached nation-level issues, resulting in a significant impact on each state's local community. In addition, it was a great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health care reform issue, which had aroused controversy across the country.

At first, I assumed that the atmosphere of a political office would be somewhat solid and conservative; however, it was different than my expectations and was much more flexible. Looking at how all the staff and interns joined in a friendly manner, I was able to approach staff members without hesitation and had discussions about ongoing issue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work, policy advisors sometimes faced movie-story-like problems of constituents on the verge of lifetime threats. Nevertheless, most of them had a clear enjoyment of what they were doing, which made my experience even more rewarding.

Before this internship, I assumed there would be a multicultural workforce, which was opposite of what it was in reality. The office of Senator John Kerry consisted of a majority of white employees and two workers of minority. One of the two non-white employees was an African American policy advisor, Matthew Martin, and me, the

only Asian intern. At that time, I came to realize that politics was still conservative in terms of the ratio of majority to minority employees. Over the summer, I worked harder than ever to demonstrate that I, as a Korean Intern, prioritize tasks and manage my responsibilities so that my superiors could rely on me. Through my experience in this internship, after being asked to stay on as a part-time employee during the academic year, I realized that hard work truly does pay off eventually.

Lastly, I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has given me this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he internship at the office of Senator Kerry has opened my eyes to a broad world and will serve as a stepping stone to excel in my career. My experience in the Finance & Accounting department has furthered my belief that finance and politics are closely related. With my business background, I would like to become an expert in the finance world, and later on to pursue my career in politics, as influenced by my internship experience. I hope that one day, there will be influential Korean-American political figures like Senator Kerry in U.S. politics, leading the most developed nation in the world. Furthermore, I would like to ask for continued support from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as it has given me the chance to raise the voice of not only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but also the Asian-American community as a whole.

인턴십을 통해 꿈을 구체화하는... Clear Vision: Attained through Internship

by Claire Boreum Lee

개인적으로

나는 정부 분야의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정확히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치 분야에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흔히들 정치계라 하면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해서 세계에서 발생하는 난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면서 그저 논의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 해 동안 정치학 과목과 역사 과목을 수강하면서 세계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쟁을 듣게 되었고, 그 결과 장차 정치계의 일원이 되어 적극적으로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더 공부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먼저 정부의 종합적인 체계에 대해, 그리고 이 나라의 복잡한 정치 구조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13년간 미국에 살면서, 나는 많은 미국인들이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종종 보스턴글로브지와 뉴스 웹사이트들을 통해 정치계에 대해 관심을 키워왔다. 특히 신문은 정부 조직과 직접 접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다. 정부조직의 속성과 절차들에 대해 읽으면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정부에 대해 지식을 쌓고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인턴십을 하는 첫날 나는 어떻게 12 주를 채울 수 있을지 두렵기도 하고 의아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했다. 나는 인력관리실에 배정되었는데, 이곳은 헌법지원실과 방을 같이 쓰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주지사 비서들

및 다른 인턴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다. 처음에 나는 하루에 8 시간씩 인턴십을 하는 것이 매우 느리고 지겨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들이 발생하곤 했기 때문이다. 문서들을 팩스로 보내고, 문서들을 스캔해서 보관 및 파일화하는 일, 전화를 걸고 받는 일, 주정부청사에서 길 건너에 있는 국무부 사무실에 문서를 배달하는 일 등등. 사무실은 항상 북적거렸다.

아름답게 장식된 주정부청사의 대리석 계단을 걸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영예스럽고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건물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곤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정치적 심장부에서 일하게 됨으로써 나는 정치계의 모든 측면들을 접할 수 있었다. 즉 문밖에서 진행된 다양한 시위들, 관광객들, 신문 기자들, 유명한 상원의원들, 주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유권자들 등등...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주지사 사무실에서 매우 편안한 느낌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무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도 의미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예의를 갖추고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하루 일과를 조용하게 진행해야 했다. 또 사무실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전화받을 때도 긴장해야 했다. 심지어 머리를 숙이고 목소리를 낮춰서 아무도 듣지 말기를 바라기도 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비결은 실수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사교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운 것 같다. 또한 내가 수행한 인턴십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안목과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나는 인력관리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행하는 배경 체크를 돕고, 또한 '일일 임시 결혼집례 임명'에 관한 업무도 도왔다. 여기서 '일일 임시 결혼 집례 임명'이라는 것은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집례해서 결혼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지방 정부의 여러 가지 복잡한 법 조항들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심지어 매사추세츠주에 있는지조차 몰랐던 마을이나 도시들을 이름도 알게 되었다. 매일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을 통해 나는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은 물론 다른 데이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다루는데 익숙해졌다. 그리고 주정부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필요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다. 나는 대부분의 매사추세츠주 주민들이 주지사에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때로는 전화를 통해 어려운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 후로 어떤 전화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 외에도 인력지원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매사추세츠주의 법들을 소책자로 만드는 작업을 했다. 각종 법령, 법조항, 법문구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이 작업을 끝내는데 약 한 달이 걸렸는데, 그것은 법들이 지닌 모호한 성격 때문이었다. 또한 법령들 간의 혼동으로 인해 나는 종종 수퍼바이저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 다양한 법령과 법조항들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나는 침묵으로 자리를 지키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배웠다.

내가 경험한 인턴십의 또 다른 측면은 주지사가 행한 강연들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곳에서 우리 인턴들은 주청사의 여러 직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주지사를 만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주지사와 악수도 하고, 주지사의 강연을 두 번이나 직접 듣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주지사가 행한 강연들은 직원들과 인턴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직원들은 개인적인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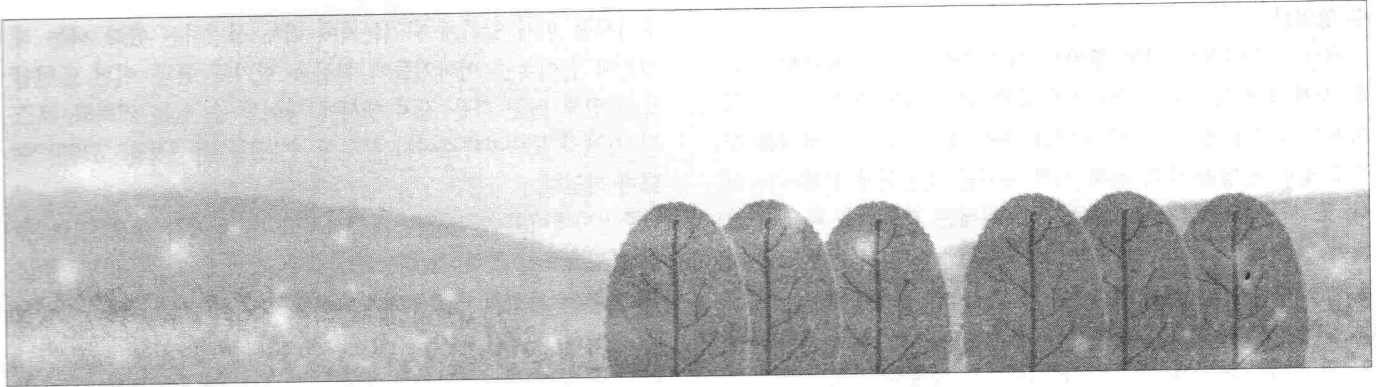
주지사를 위해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곤 했다. 나는 직원들이 쏟아놓는 이야기들에 감동을 받기도 했다. 이번 인턴십으로 인해 나는 다른 정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보스턴 지역의 노숙자숙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청사에서의 인턴십은 지금까지의 내 삶에서 얻은 경험 중 가장 교육적인 경험이었다. 내가 겪은 경험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회적 관계망형성의 유용성이다. 다른 동료 인턴들과 인생의 목표를 나누는 좋은 친구로 사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무실 수퍼바이저와도 매우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매사추세츠의 중심부에서 일함으로써 나는 이미 정치계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하곤 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수도인 이곳 보스턴의 법적인 기능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됨에 따라 나는 앞으로 계속 보스턴에 살면서 바로 이곳에서 내 인생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 법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좀 더 전문적인 법지식을 쌓아갈 계획이다. 나는 이번 인턴십을 통해 앞으로 정부 분야와 다른 여러 정치 분야에서 일하리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나 자신 현 정부체제를 개선하고, 미주 한인 공동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나는 다음 세대의 한국계 미국인들이 국제 분야에 많이 진출해서 한국 사회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고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이다. 나는 미국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한국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장래 한국계 미국인들의 분명한 자기인식과 역량강화가 없다면 두 가지 문화 사이의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번 주청사에서의 인턴십으로 인해 나는 한국과 미국이 더 좋은 동맹국가가 되는데 나 자신 어떻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뉴잉글랜드 한인 시민권협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 I cannot exactly identify where this interest originated, but in my mind, the political domain presents a window of countless opportunities. To many, politics paints a dull picture consisting of men in stuffy suits partaking in meetings that never seem to solve the conundrums produced by the world. However, after years of sitting in politics as well as history classes and listening to controversial issues occurring around the globe, I came to await the time when I could



be a member of the political arena and actively offer my voice.

Overtime, I realized how much I did not know about the general government system, let alone the complicated political scheme of this country. Having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around thirteen years, it was obvious to me that it is inevitable for an American resident to remain unaffected by local and federal government decisions. Nevertheless, I wondered how I could be deeply immersed in a topic when it seemed that there was so much I did not know about it. Regardless of my observations, I made efforts to foster my interests by frequently keeping tabs with the Boston Globe, and quick feed sites such as Digg for news updates. After all, a newspaper is one direct medium that conjoins constituents with the government. Reading about the elaborate nature of the procedures and structures of the government stimulated my interest, and it led me to conclude that I could not confirm my interest unless I had a firsthand experience. It was time that I expanded my knowledge and to directly peer into government.

My first day of the internship left me feeling intimidated and wondering how the twelve weeks would end up for me. I was assigned to the Personnel Office, which shared an office space with the Constituents Services, which allowed me to interact with more Governor's aides and interns. Initially, I imagined that the eight hour work day would move painstakingly slowly,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re was constantly something that required attention. From faxing, filing, and scanning documents, answering and making calls, completing deliveries within the State House and across the street to the Secretary of the Commonwealth, the office was always busy.

Each time that I walked down the marble steps in the beautifully decorated halls of the State House, I never ceased to feel grateful at having the opportunity to work in such a prestigious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building. Being situated in the political nucleus of Massachusetts, I was able to view all facets of political life: from witnessing various protests outside the gates, to tourist groups, to news reporters, famous senators, and constituents demanding or

declaring support for the Governor.

Eventually, I became very comfortable in the office, which permitted me to have meaningful discussions with other workers. However, there were some moments within the first few weeks when I stayed mostly quiet throughout the day, in an attempt to appear polite and to deliver an acceptable first impression. Before I was accustomed to the atmosphere of the office, my level of self consciousness was so high that whenever I answered a call, I tilted my head down and lowered my voice in hopes that no one would be able to hear my phone conversations. Looking back now, I learned that the key to success in such an environment is to be outgoing and confident, unafraid to face mistakes and to ask questions. After all, the ultimate goal is to meet as many people who share similar interests as possible in order to expand one's information base.

Because I was in the Personnel Office, I regularly assisted with online background checks, and One Day Marriage Designations. The latter is a marriage license granted to a non clergy member to wed two parties for one day. By working with these two projects, I learned a lot of intricate details of the local laws, and the names of towns I did not even know existed in Massachusetts. Not only did I acquire expertise in Microsoft excel and other internal data software by repeatedly entering information into the computer, but I was also exposed to the minute contributions that play a part in permitting the state to function smoothly. Overall, I discovered that most Massachusetts residents are content with the Governor, but there were a couple instances when I had to cope with difficult callers on the phone, thereby preparing me for any type of call that I might receive in the future.

Additionally, I worked on a project that compiled the laws of Massachusetts together into one booklet as a reference for the Personnel Aides. Having to review various statutes, clauses, and principles, I came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aw. This project took me about a month to complete due to the arcane nature

of the law, but the confusion of the statutes forced me to ask questions and actively interact with my supervisor. During the process of accumulating knowledge on a variety of statutes and rules, I learned that asking a million questions is better than sitting silently and making mistakes.

Another aspect of the internship I thoroughly enjoyed was the privilege of attending the Governor's Lecture Series, where interns had the opportunity to directly converse with the State House staff, and to meet the governor. I have the honor of saying that I shook the Governor's hand and directly hear him speak twice. The Lecture Series were more of dialogue between the staff and the interns, where the staff, by sharing personal anecdotes, explained how they came to work for the Governor. Through the stories of the employees, I grew inspired. The internship also opened up opportunities for me to attend other political events and to volunteer in shelters in the immediate Boston area.

The internship at the State House was the most educational experience I had thus far. One major lesson I drew from the experience is the usefulness of networking. Not only did I come to meet other fellow interns as great friends that shared my goals, but I came to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my supervisors as well. Working directly in the core center of Massachusetts only served as

a personal reminder that I belong in the political world. As I have a much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legal functions in Boston, I plan to reside in Boston and develop my career in the capital of Massachusetts. I can confidently say now that I will attend law school and continuously work to further my education, because there will never be an end to what I do not know. My time at the State House confirmed my dream of working within government, and made me realize that I want to explore other areas of politics to acquire more experience and to someday, offer a voice that will ameliorate the current government system and importantly, to strengthen the Korean community.

More than ever, I acknowledge the fact that is crucial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to arise to the international arena and represent Korean society. Living in an ever changing, diversifying, and complicated worl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preservation of the Korean identity is crucial. The American-Korean cultural balance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vital interest and strength of future Korean Americans. The internship at the State House provided me with a clear vision of how I want to be a strong proponent in advocating for the welfare of Korean Americans in our society as well as building the bridge for a better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주 보스톤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총영사 (Consul General) : 박강호

One Gateway Center, 2nd Floor, Newton, MA 02458

Tel: 617-641-2830

Contributing to Change as a Citizen of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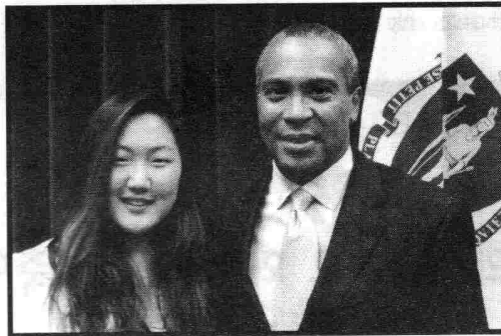
by Deborah Jiehyun Song

Before

I begin to describe my summer interning in Governor Deval Patrick's Office, I would like to take the time to thank those who have supported me and my internship position at the State House: my beloved parents and brother Taeminn, Hyunmee, and Timothy Song, the Koran American Citizen's League, my Government and Psychology major advisors Dennis Yasutomo and Fletcher Blanchard, my seminar professor Lauren Duncan, my friend, former boss, and mentor Arti Sharma, the wonderful staff at the State House that truly made my experience in the Governor's Office memorable as well as meaningful Bianca Hoffman, Tom Reece, Mary Kate Feeney, Mark Lilienthal, Daniela De Caro, Andrew London, and of course, Governor Deval L. Patrick.

Few people rival the tremendous love and esteem I hold for you in my heart. Thank you so much for your words of advice and encouragement.

In 2010, on a train from London to the south of France, I received a call from a number in the United States. The woman identified herself as Christine, the intern coordinator for th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and asked me, "why do you want



to work here", "what kind of experience do you have that will prepare you for this job",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five years", "how will this experience help you to reach that goal"?

Without hesitation, I explained my personal, school and work experiences, which I felt prepared me for the work I would be required to do at the Governor's Office. At that time I

was determined to work in a place where I could be a part of change for my own community. Although I had no specific, self-made benchmark to reach in five years, I knew that my life would and should be dedicated to impacting social change.

After completing two and a half years at Smith College, a women's college in western Massachusetts and spending my 2010 spring semester abroad in London, I felt confident. I knew being an intern in the Governor's Office would be challenging work, but I assumed there would not be any situation too arduous or be presented with a situation that I had not handled in some way before. As soon as I got back to the States I started working at the State House.

The first day I was introduced to my immediate supervisor and the other students I would work side by side with that summer.

We mingled with one another and got our informational binders that were to aid us in our tasks. All in all, it was like any other orientation. That first day was simple and straightforward. The next day was when I would start doing the work I would be responsible for during the entirety of the summer.

Morning came round and placing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s I walked up to the entrance of the State house my lungs began to shrink. It became hard for me to breathe. The self-assurance I had felt the day before began to peel away with each step I took into the gold-domed building.

It dawned on me how challenging the rest of my days at the Governor's Office would be as the day progressed. I expected to be put to work, do not misunderstand me, but unlike the lower-level tasks I thought I might be doing, I found myself being asked to accomplish much of the work that full time staff members carry out: responding to constituent's comments, concerns, and suggestions, finding solutions or mediators for those who were in need of aid, and other tasks that help the office run smoothly. I was taught how to create citations and proclamations. I was sent to deliver important documents to the speaker of the house, secretary of state, and to the governor himself. I enjoyed doing all of these things, but what truly pushed me to do my best at the office each day, were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who had come to the Governor's Office, having no one else to turn to.

Over the next few months I came to comprehend some of the inner workings of the State house, particularly how the governor reaches out to constituents in need through his very talented staff. I was fortunate enough to be a part of that dialogue during my time at the Governor's Office. They were reacting and engaging with me

in hopes to voice their opinions on bills or problems they found important.

Many bills have been implemented during my time at the Governor's Office. Most major bills and decisions with lots of feedback from constituents concerned safety and health or education and employment.

Take for example the "nurse bill". In a single day I received over 25 calls concerning the "nurse bill" as it was called in the office. Each person was in support of the bill, telling stories about how a family member had been injured or harmed during the transportation of patients. They felt especially supportive of the governor's position to pass this bill because of the experiences their loved ones' incidents. This particular bill protected health care workers in case of injury during the treatment or transportation of patients. Another bill that focused on safety was the no-texting bill, which made texting while driving illegal. The safe driving legislation highlighted a major concern to parents and teens that texting or cell phone use is distracting and a detriment to safe driving.

Legislation acknowledged the status of six Massachusetts universities and an official announcement of a \$25-million contribution towards Massachusetts Green High Performance Computing Center in Holyoke both will help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to create better futures through high levels of education and promoting jobs through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computing facility. Phone calls and letters voiced support for Governor Deval Patrick's actions to continue investing in the people of the commonwealth by educating the young, creating jobs for the current generation, and advancing future generations through sophisticated technology.

www.kccboston.org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BOSTON
보스톤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정광호 도미니코

주일 미사: 오전 11시 30분
토요 청년미사: 오후 5시
평일미사: (목) 오후 7시 30분

예비자교리: (수) 오후 8시
주일학교: (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학교: (일) 오후 1시 30분

617-244-9685

1518 Beacon Street, Waban, MA 02468



역대 정치 인턴 명단

| | | | |
|------|--|--|--|
| 1998 | Thomas Kim | Georgetown University School of Foreign Service |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
| 1999 | Caroline Kim Daniel Kim David Lee Sarah Park | Barnard College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Boston College Harvard University |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Attorney General's Office House of Representative / House Committee on Rules Mass. State House / Gov. Cellucci's Press Office |
| 2000 | Eun Young Choi Song Yee Han David Kim Benjamin Smith Irene Park James Uhm | Harvard University Tufts University Boston University Bowdoin College Tufts University |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Senator Edward M. Kennedy's Office in Boston State House / Gov. Cellucci's External Relations Dep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in Boston |
| 2001 | Min Suk Lee Yumee Lee Unok Nam Doohyun Paek | Tufts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Mills College University of Mass-Amherst | Massachusetts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Mass. Governor's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Mass. State House, Executive Office |
| 2002 | Jennifer Myung Sonia Kim Yumi Lee Chan Joung Lee | Harvard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Senator John F. Kerry's Offices in Washington D.C.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Information Technology Division of the Mass. Governor's Office |
| 2003 | Min Young Lee Hee Jin Lee Heidi Yoo | Boston College Harvard University Wesleyan University |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Senator John Kerry's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
| 2004 | Se Yeom Kim Jihun Kim Jeong Mee Oh Jia H. Jung | Syracuse University Harva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Massachusetts State House, Executive Office Gov. Romney's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
| 2005 | Bomie Chae Hyejin Yu Eliza Chon Jesse Sejin Kim | U of Massachusetts U. of Massachusetts Amherst University of New Hampshire U. of Mass. Boston |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Office in Washington D.C. City of Boston Mayor's Office |
| 2006 | Angelina Hong Stephanie Chang | Williams University Northwestern University |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 At-Large Sam Yoon Massachusetts State House |
| 2007 | Michael Dong Younyoung Lee | Bentley University Georgetown University |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Office of Congressman Doug Lamborn |
| 2008 | Yeonman Jung Michael Shin Jaewon Lee, | U. of Mass. Amherst Groton High School, Groton, MA Tufts University, |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Office of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Mass. Department of Veterans Services |

| | | | |
|------|---|---|--|
| 2009 | Michelle Dong Steven Suh Hyun Jung Kim Brian Kim Jae-Hyuk You | Bentley University Univ. of Michigan St. Paul's School Oyster River High Phillips Andover |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Massachusetts Governor's Office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Junior Intern) NewHampshire Governor's Office (Junior Intern) Boston City Councilor, Sam Yoon (Junior Intern) |
| 2010 | Bo-Reum Lee Han-Ju Ryu Deborah J. Song Maria Kim | Brandeis Univ. Babson College Smith College North Reading High | Mass Governor' s Office Senator John F. Kerry's Boston Office Mass Governor' s Office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

2011년 시민 협회 주요 행사 일정 및 주요 사업 계획 KACL Events and Major Activities



February 26 1st Board Meeting
2011년 1차 이사회
정치인턴 모금만찬 티켓과 초청장 배부

April 2 AFD (Annual Fundraising Dinner) for Young Political Interns
정치인턴 모금 만찬 (장소: Lexington 소재 "Lexington Elks Club")

June 25 2nd Board Meeting and Citizenship workshop
2차 이사회 및 시민권 취득 워크샵

September 10 3rd Board Meeting
3차 이사회

October 1 Annual Meeting
경기총회

1. 회의: 총회 1회, 이사회 3회(2, 6, 9월), 상임이사회 및 상임 임원회 2회, 편집위원회 3회, 특별위원회
2. 출판 및 홍보: 회지 발간 1회, 매체 등 각종 홍보 활동
3. 캠페인: 각종 캠페인 3회 이상 (투표, 유권자 등록, 회원 확보, 법안 반대 및 추진, 한인 정부직 추천, 기타)
4. 시민권 취득 워크샵: 1회 (6월)
5. 기금 모금: 정치 인턴 후원 모금 만찬 (4월)
6. 여타 단체와의 유대: 전국 대회 참가, 여타 소수 민족 회의 참가 등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12 Summer Internship Program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KACL) invites college and graduate students to apply to its 2012 Summer Internship Program. Interns will be placed in the offices of U. S. Senators, Congressmen, or the State Government, or other places, and they will receive a stipend of \$2,000. At the end of their internship, they will be expected to write a one-to-two page essay describing their experience, which will be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ACL.

KACL is a non-partisan, non-profit organization founded in 1990 to provide a coherent political voice within the community. Through the Summer Internship Program, KACL hopes to encourage the political involvement of young Korean Americans, foster their interest in public policy-related careers, and develop their leadership skills.

Eligibility Requirements:

- Applicant must be a current college/graduate school student in good standing.
- Applicant must be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of Korean American origin.
- Applicant must be a New England resident or attend a college in New England.
- Applicant must have a minimum grade point average of 3.0 (on a 4.0 scale), along with evidence of leadership abilities and excellent oral and written communication skills.

Please send the following information to:

Jae B. Park,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1. A brief essay (less than 500 words, eg why you want to participate in the internship program, how you can benefit from it, and the areas of interest). This will b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package to the politician's office.
2. Resume Include educational information, work experience, volunteer experience, activities & other interests.
3. Current school transcript.
4. 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Addressed "To Whom It May Concern" because it may be forwarded to the politician's office).

Applications must be postmarked by January 31, 2012
Faxed or e-mailed documents will not be accepted.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notified in March.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Jae B. Park, at (617)851-3084 (Cell) or e-mail to jaep64@gmail.com

For information on KACL, please visit <http://www.javapassion.com/kaclin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2012 Summer Internship Program Application

Name: _____

Date of Birth: _____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U.S. Citizen: _____ Legal permanent resident: _____

Current Telephone Number: _____

Best time to call: _____

Current e-mail address: _____

Current Mailing Address: _____

Permanent Address: _____

Permanent Telephone Number: _____

College: _____

Major: _____ GPA: _____

Expected Degree and Year of Grad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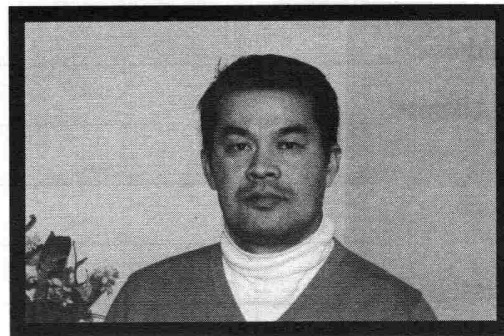
2010년 시민협회 활동보고

●사무총장 박재범

1. 이사회와 임원회

2010년 1차 이사회는 2010년 3월6일(토요일) 김성균 이사장 자택에서 개최되어, 정치인턴 모금만찬 준비현황의 보고, 회지발간 준비, 재무보고및 이사회비 현황보고가 있었으며, 2010년 사업계획과 유권자 파악 DATA에 바탕하여 구체적인 유권자 등록 권유사업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010년 2차 이사회는 7월24일, (토요일) 김양길 전이사장택에서 "시민권 취득 워크샵"이 끝나고 있었으며, 정치인턴 후원 모금만찬 평가및 배치보고와 더불어 "20차 정기총회"에 대한 토의, 그리고 MASS 주



석하였습니다.

2010년 3차 이사회는 9월25일 가야 식당에서 있었으며, 정치인턴 근무 현황보고와 11월 선거 유권자등록 권유 활동, 재무보고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와 저널 20호 발간에 대한 토의, 그리고 새로운 유급사무총장 선임을 회장단에 일임하는 결의도 하였습니다.

2. 정치인턴 후원 기금모금 만찬

2010년 4월24일(토요일) 오후 6시, Lexington소재 Lexington Elks Club에서 약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금만찬이 개최되었습니다. 김한나양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김주석 보스턴 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버지니아 지역에서 한인인으로서 최초로 주-하원의원에 당선된 MARK KEAM의원의 강연이 있었으며, 감사패증정 순서에 이어, 2010년 인턴으로 이보름, 유한주, 대보라 송, 김성희(주니어 인턴)가 선정되었습니다. 보스턴 한인 합창단, MIT대학 "우리" 풍물놀이패, 이중창으로 김효진 (소프라노)와 강정래 (테너)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3. APIA Vote행사에 적극 참여

2010년 9월 3일(금요일), 아시안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돕는 APIAVote가 주체하는 "FACES OF LEADERSHIP"행사에 2010년 정치인턴인 유한주군을 포함하여, 이경해 회장과 김성



지사 선거 후원활동의 일환으로 이사들의 후원행사 참여를 촉구 하였습니다.

8월25일에는 현 주지사인 DEVAL PATRICK를 위한 범소수민족이 모이는 "UNITY NITE"에 여러 이사들이 참

군 이사장 그리고 이사등 모두 1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계를 빼곤 가장 많은 소수민족으로 한인이 참여하여 시민협회의 위상을 보여줬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4. 시민권 취득 워크샵

1996년에 최초로 시작하여, 올해로 약 20번째 이뤄지는 워크샵이며, 7월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되어 총 30여명이 참석하였고, 특별히 이 행사에 유한주군의 노력으로 많은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5.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권유 사업

유권자등록사업은 시민협회가 늘 추구했던 사업이며, 2010에는 특별히 전국 아시안 유권자 연맹단체인 APIA Vote의 공조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협회 회원 약 350 가구 전체에게 유권자 안내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10년 10월 1일 (금)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총 8명의 자원봉사자가 한곳에 모여 유권자등록을 권유하는 전화통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350여명에게 모두 전화하여, 한인-유권자에게 유권자-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전화요청으로 당일 30여명이 등록하기를 약속하였고, 우편으로 서명된 "선거인 등록카드"를 받아 해당 시/타운에 10월 13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발송하였습니다.



후 6시부터 10시까지 총 8명의 자원봉사자가 한곳에 모여 유권자등록을 권유하는 전화통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350여명에게 모두 전화하여, 한인-유권자에게 유권자-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전화요청으로 당일 30여명이 등록하기를 약속하였고, 우편으로 서명된 "선거인 등록카드"를 받아 해당 시/타운에 10월 13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발송하였습니다.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잉글랜드 한인회
Korean Society of New England, Inc.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781-933-8822

회 장/ 유한선

이사장/ 이병현 339-227-5229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헌장

Constitution of the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뉴잉글랜드 한인 미국 시민 협회 (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뉴잉글랜드로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대 보스톤 지역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한인 미국 시민의 미국 정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2. 한인 미국 시민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권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
3. 한인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을 확대하며, 사회 부조리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4. 한민족의 역사적 전통을 유지, 보존하여 후손에 계승, 개발케 함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게 하고,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5.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제4조: 사업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행사를 권장한다.
2. 한민족과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원한다.
3. 한민족의 권익에 관련된 법률의 의회 통과 및 통과 반대를 위한 합법적인 로비 활동을 한다.
4.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인사에 대한 청원서, 서신 등을 송부한다.
5. 한민족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합법적 행사를 한다.
6. 한민족의 가정 보호, 청소년 선도 및 노

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7. 한인-미국 동포 2세들의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돕는 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와의 관계

본회는 뉴잉글랜드 지역 한인회들과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시민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2. 준회원: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미국 영주권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
3. 특별회원: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사람으로써 회장단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

제8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고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결의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제9조: 경관 및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사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람.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

회, 상임이사회 및 임원회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2.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4주 이내에 소집하며, 재직 회원 1/3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된다. 임시 총회가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또는 재직 이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재직 이사 출석으로 성회된다.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회의 2주전까지 심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우편 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당연직 이사,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1/3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5.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기능

1. 정기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 혹은 승인한 사항 외에 다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가. 전년도 결산 및 사업 보고.
- 나. 신년도 예산 및 사업 계획.
- 다.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선출.
- 라. 헌장 개정.
- 마.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안건.

2.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을 연구, 계획하여 총회에 건의하며,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을 협조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가.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추천.
- 나. 사업별 분과 위원회의 조직

다. 분과 위원회의 운영 세칙 인준
 라. 헌장 개정 추천
 마. 세칙의 제정 및 변경
 바. 회원의 가입 (특별 회원 포함), 자격
 정지 및 제명

사. 회비 책정
 아. 예산 및 결산안 인준
 자. 사업 계획 추천
 차. 고문의 인준

카.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3.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분과 위원장, 지역
 간사 및 당연직 이사들로 구성되며, 이사회
 를 보다 활성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준비하며, 긴급 사업 계획 및 안전을
 심의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4. 임원회는 회장단 및 지역 간사들로 구성
 되며, 이사회나 상임이사회에 결의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법을 구상하고
 집행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보
 고할 제반 사업 보고 및 처리 보고서,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상임이
 사회와 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
 으며 회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제12조: 회장단의 구성

1. 회장 1명
2. 부회장 5~6명
3. 사무처장 1명
4. 재무 1명
5. 대변인 1명
6. 섭외 약간명

제13조: 회장단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 후보중 정기 총
 회에서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총회 30일 전까지 회원 50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사무처장, 재무, 대변인 및 섭외는 회장
 이 정회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
 을 받는다.

제14조: 회장단의 임기

1.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단 중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이 추
 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 기간이다.

제15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임원회를 주
 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하고 잔여 기간만 재임한다. 부회장은 본회
 의 사업을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기능별로 사업을 분담맡아 책
 임 수행한다. 또한 이사회의 각 기능별 위
 원회의 지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행하
 며, 사무처장과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관하여
 추진하고, 고문의 자문과 협조를 받는다. 이
 를위하여 과업수행에 따라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 수행단 결성, 책임자, 특별위원을 지정
 하여 운용할수 있다.

4. 사무처장은 본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및 부회
 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을 위한 일체의 사
 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사업 보고를 한다. 사
 무총장은 유급으로 한다.

5. 재무는 회비를 징수하고 본회의 재무를
 담당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재정, 결산, 예
 산 보고를 한다.

6. 섭외는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를 위한 섭외 활동을 한다.

7. 대변인은 회장 및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본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발표한다.

8.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9. 회장단은 특별 회원을 추천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0명 이내의 선출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감사 2명, 각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를
 둔다.

제17조: 이사의 선출 및 임기

1. 선출 이사는 다음 후보 중 정기 총회에
 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새로 선출할 이사의 수는 총회 전 이사
 회에서 정한다.

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총회 30일전까지 회원 30명 이상의 추
 천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한 사람

2.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선출 이사 중 이
 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이사 임기와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3. 감사,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는 선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이사
 의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4년으로 한다.

제18조: 이사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와 상임 이사회를 소집
 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잔여 기간
 만 재임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11조 2항의
 회무를 의결하며, 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
 기능을 발휘한다.

4. 분과 위원장 및 지역 간사들은 제4조 사
 업에 따른 사업들을 각 분과 위원회에서 연
 구, 검토하여 사업 계획서를 이사회나 상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서기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
 성, 보존하며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6.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이사회비, 찬
 조금, 보조금 및 기타 본 회의 사업에서 나
 오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 지출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결재를 얻어
 행하며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장 헌장 개정

제21조

본 헌장은 이사회 또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제안으로 총회에서 출석 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이 헌장은 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1996년 현재의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
 기는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개정

1. 제정: 1990년 8월 18일 창립 총회.

2. 제1차 개정: 1994년 10월 1일

3. 제2차 개정: 1996년 10월 19일

4. 제3차 개정: 2005년 10월 29일

협회 임원, 이사 명단 및 주소록

Directory of the Officers and Board of Directors

● 임원 (OFFICERS)

| | | | | |
|------|-----|---|--|---|
| 회장 | 이경해 | President Dong, Kay | 103 Chase Run, Stoughton, MA 02072 | H: (781) 344-3089 O: (781) 297-5679 Email: kayleebrokers@aol.com |
| 부회장 | 신상철 | Vice President Shin, Sang Chul (PhD) | 5 Dewey Rd., Lexington, MA 02420 | H: (781) 862-0512 O: (978) 442-0531 Email: sangshinpassion@gmail.com |
| 사무총장 | 박재범 | Executive Director Park, Jae B. | 5 Morningside Circle, Woburn, MA 01801 | C: (617) 851-3084 Email: jaep64@gmail.com |
| 재무 | 송기백 | Treasurer Song, Gi B. | 16 Odyssey Lane, Dedham, MA 02026 | H: (781) 461-1333 C: (781) 510-9924 Email: gisong@comcast.net |

● 이 사 (BOARD OF DIRECTORS)

| | | | | |
|-----|-----|--------------------------------------|---------------------------------------|--|
| 이사장 | 김성군 | Chairperson Kim, Song-Kun (Esq.) |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 H: (978) 664-1417 C: (617) 799-7033 Email: songkkim1@gmail.com |
| 감사 | 김문소 | Auditor Kim, Moon So (DVM) | 10 Cardinal Lane, Andover, MA 01810 | H: (978) 475-3534 (978) 470-3232 Email: moonsokim@comcast.net |
| 이사 | 김명기 | Board Member Kim, Michael M. | 2 Lamprey Lane, Lee, NH 03824 | H: (603) 659-6129 O: (603) 659-4845 Email: hegrouph@hanmail.net |
| 이사 | 김성혁 | Board Member Kim, Sung Hyuck | 29 Maple St., Florence, MA 01062 | H: (413) 584-8448 C: (413) 535-0916 Email: sungh999@gmail.com |
| 이사 | 김양길 | Board Member Kim, Yang-Kil | 182 Olympic Ln., N. Andover, MA 01845 | H: (978) 691-5108 Email: yangkil.kim@comcast.net |
| 이사 | 박필수 | Board Member Pak, Phil S. | 115 Wharton Row, Groton, MA 01450 | H: (978) 501-0292 O: (978) 449-0400 |
| 이사 | 박형수 | Board Member Park, Hyung Soo | 20 Winfield Rd., Hingham, MA 02043 | H: (781) 413-7816 Email: hhpemail@gmail.com |
| 이사 | 방경남 | Board Member Bang, Kyungnam Kevin | 10-12 Cedar St., Wellesley, MA 02481 | W: (508) 655-5004 C: (917) 922-2239 |

| | | | | |
|----|--------|--------------------------------------|--|---|
| 이사 | 안성완 | Board Member Ahn, David Seongwan | 76 Kent St. #B2 Brookline, MA 02445 | H: (617) 739-2990 Email: cptahn@gmail.com |
| 이사 | 양미아 | Board Member Yeung, Mia | 7 Hundreds Rd., Westboro, MA 01581 | H: (508) 366-9007 C: (508) 728-0832 Email: miajyeung@yahoo.com |
| 이사 | 이기표 | Board Member Lee, Kee Pyo | 26 Norcross St., Arlington, MA 02474 | H: (781) 643-2958 Email: space_korea@yahoo.com |
| 이사 | 성 데이비드 | Board Member Sung, David | 329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 O: (617) 731-1122 |
| 이사 | 송현미 | Board Member Song, Elaine Hyunmee | 23 Mason St., Lexington, MA 02421 | H: (781) 863-0661 O: (617) 835-7664 Email: elaine.song@nemoves.com |
| 이사 | 장경우 | Board Member Chang, Aaron Jungwoo | | C: (413) 636-5148 Email: dreamerajc@gmail.com |
| 이사 | 경석호 | Board Member Chung, Paul S. | 10 Meadowbrook Rd., Hudson, MA 01749 | H: (978) 562-0502 Email: koreatraveltour@gmail.com |
| 이사 | 정옥경 | Board Member Ok Kyung LeBlanc | 11 Johnson Dr., Newmarket, NH 03857 | H: (603) 659-6112 C: (603) 834-2803 Email: grleb61@comcast.net |
| 이사 | 추경석 | Board Member Choo, Kyungseok | 311 Lowell St., #2301, Andover, MA 01810 | H: (978) 409-2263 C: (315) 527-9623 Email: kyungseok_choo@uml.edu |
| 이사 | 한문수 | Board Member Han, Moonsu | 11 Sherrin Road, Newton MA 02462 | H: (617) 795-1779 Email: moon.usa@gmail.com |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회 장/ 윤희경
508-740-9188



KACL-NE Financial Statement

(Period: 10/25/09 ~ 10/23/10)

Income Statement

| | |
|----------------------------|-------------|
| Membership | \$1,410.00 |
| Board of Directors Due | \$2,400.00 |
| Journal Ad. | \$4,950.00 |
| Political Internship event | \$5,605.00 |
| Donation | \$5,165.00 |
| interest | \$87.19 |
| Total | \$19,617.19 |
| Pre. Balance | \$21,952.21 |
| Grand Total | \$41,569.40 |

Expense

| | | |
|-------------------------|-------------|-------------|
| Office | Work | \$910.00 |
| | Supplies | \$1,164.65 |
| | Postage | \$289.11 |
| Political Intern | | |
| | Event | \$5,280.80 |
| | Scholarship | \$5,500.00 |
| Printing | | |
| | Journal | \$2,770.00 |
| | Other | \$360.58 |
| Donations | | \$565.56 |
| Membership | | \$300.00 |
| Meeting (Board, Annual) | | \$155.00 |
| Total | | \$17,295.70 |
| Balance | | \$24,273.70 |
| Grand Total | | \$41,569.40 |

2011년 수입 · 지출 예산

●수입 예산

| | |
|---------------|-------------|
| 회비: \$10x150명 | \$1,500.00 |
| 이사회비: 20명 | \$4,000.00 |
| 협회지 20호 광고 수입 | \$5,000.00 |
| 정치인턴 모금파티(*) | \$12,000.00 |
| 기타 찬조비 | \$4,000.00 |
| 총계 | \$26,500.00 |

●지출 예산

| | |
|------------------|-------------|
| 협회지 20호 인쇄비, 발송비 | \$5,000.00 |
| 유급 사무요원 보수 | \$2,000.00 |
| 광고비, 타기관 지원비 | \$1,000.00 |
| 이세 활동 지원비 | \$1,000.00 |
| 정치인턴 장학금(*) | \$5,000.00 |
| 정치인턴 모금 파티 경비(*) | \$5,000.00 |
| 제 21회 총회 경비 | \$1,000.00 |
| 전국 대회 참가비 | \$1,000.00 |
| 은행 경비 및 기타 | \$200.00 |
| 우편비 | \$500.00 |
| 사무비 | \$500.00 |
| 비품비 | \$1,000.00 |
| 예비비 | \$3,000.00 |
| 총계 | \$26,500.00 |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민주 평화 통일 지문 회의 보스톤 지역 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of Korea, Boston Chapter

회장/ 이정강

401-474-5960

뉴잉글랜드 한인 세탁인 협회

New England Korean Dry Cleaners Association

회장/ 조온구

508-826-5270

보스톤 한미 노인회

Korean American Senior Association of Boston, Inc

회장/ 이학렬

617-388-9107

보스톤 봉사회

Boston Asian American Services Inc

회장/ 윤희경

508-740-9188

보스톤 체육 협회

회장/ 구경희

781-276-4965

NE 골프 협회

회장/ 김민수

978-356-9196

이중문화 국제 선교회 NE 지부

MA Chapter 이평원 978-687-2029

NH Chapter 진경자 603-889-8201

NE 해병 전우회

회장/ 김우혁

781-854-8880

재향 군인회

회장/ 이강원

339-298-1187

NE 산악회

회장/ 김상호

978-569-3256

충청 향우회

회장/ 이규관

603-401-4986

NE 과기협회

회장/ 김재성

617-244-3252

이북 5도민회

회장/ 강경신

978-382-1167

보스톤 합창단

단장/ 장수인

978-264-2988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Assn. of Rhode Island

401-556-4224

회 장/ 이동수

이사장/ 조봉섭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뉴햄프셔 한인회

The Korean-American Society of New Hampshire

회 장/ 서 일

603-494-2177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Kim Law Offices **김연진 변호사**

Yeon Kim, ESQ.

15 N.E. Executive Park Burlington, MA 01803

617-742-7707

Fax: 617-507-2696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Attorney At Law **법률 사무소
김성군 변호사**

Law Office of Song K. Kim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Fax: 781-438-6177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로드아일랜드 한인 경제인 협회

Korean American Commerce & Trade Association of R.I.

회장/ Hyun J. Park
617- 515-5627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www.leebrokers.biz

이경해 부동산

LEE ASSOCIATES

사업과 부동산 무료상담 !! 1-800-867-9000

이경해(Kay Dong) Tel: 781-297-5679
Cell: 508-962-2689 Fax: 781-341-8239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결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 (Payroll) 서비스 ●



공인 회계사 (C.P.A.)

정진수

■ Harvard University 경영대학원 졸업 (MBA)
■ Pricewater House Coopers 감사부장 경력
■ 현재 Baystate Tax Principal

528 Pleasant St. Suite 2 Brockton, MA 02301

508-580-3946 [한인 전용]
508-584-5860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Beer & Wine
생선초밥 · 생선회

주말은 예약바랍니다 !!



FINE JAPANESE CUISINE

일식 전문 식당

Mr. Sushi

329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731-112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는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로서 1975년에 개교하였고
미 연방정부와 메사추세츠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서 공식 허가를 받은 학교입니다.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2011년 현재 기초 유치반, 성인반과 SAT-II 한국어반까지
모두 45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슬기롭고 자랑스럽게!' 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교사회(남일 교장), 이사회(윤경숙 이사장), 학부모회(김은성 회장)등
학교의 세 기구가 장기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늘 부단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수업 시간과 학급 편성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 문의 및 교사 지원과 등록은 아래의 주소 또는 학교 홈페이지(www.ksneusa.org)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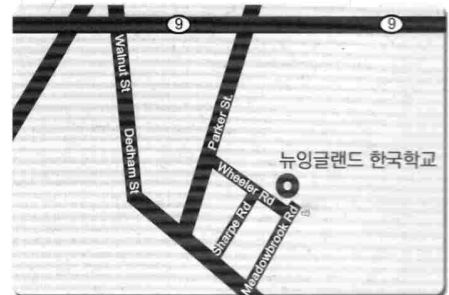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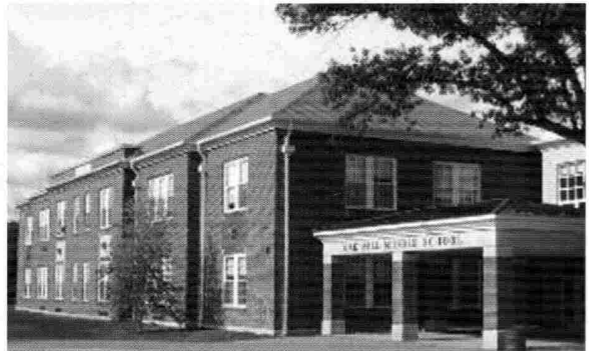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1. 등록연령: 3세 ~ 성인

2. 수업시간 및 교과과정

-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2시 40분
- 오전 정규수업 과정:
-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작문 등
- 오전 특별교육 과정:
- 음악교육(1 & 2), 붓글씨, 단소, 한국무용(1 & 2)
- 오후 특별활동 과정:
- 과목: 한국무용팀, 발레, 태권도, 미술(1 & 2)
- 펜싱, 바둑반, 붓글씨반
- 성인반 수업: 9시 30분 ~ 12시 30분 (성인1 & 2반)



3. 학급및편성: 42개 반

- | | |
|-----------|---------------|
| ◆ 기초과정(8) | ◆ 성인과정(2) |
| ◆ 초급과정(5) | ◆ 오전특별교육반(10) |
| ◆ 중급과정(3) | ◆ 오후특별활동반(8) |
| ◆ 고급과정(3) | ◆ 세종과정(5) |

4. 등록/학교문의/교사지원

교장 남 일 ☎ (508) 523-5389 Email address: ksneusa@verizon.net
교감 윤미자 ☎ (978) 987-7388 Email address: mijayun@hotmail.com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C/O Oak Hill Middle School

시민협회의 제19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www.DrJin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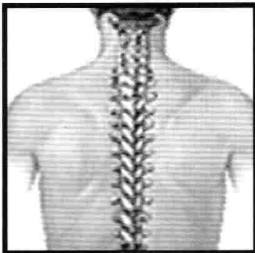
FUNCTIONAL CHIROPRACTIC

척추신경 전문 **성진우**
Dr. Jin W. Sung Chiropractic Physician

126 Merrimack Street Methuen, MA 01844

978-688-6999 Fax: 978-688-4747

시민협회의 제19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Boston Pain & Rehab Center

보스톤 통증 클리닉

물리치료 전문의 **윤 창**

Doctor of Physical Therapy **Chang Yoon**, PT, DPT

119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617-630-9900** Fax: 617-630-9901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www.DrJinS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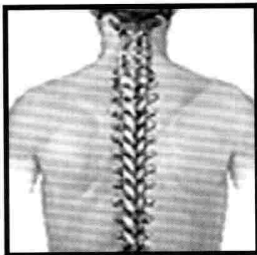
FUNCTIONAL CHIROPRACTIC

척추신경 전문 **성진우**
Dr. Jin W. Sung Chiropractic Physician

126 Merrimack Street Methuen, MA 01844

978-688-6999 Fax: 978-688-4747

시민협회의 제20호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Boston Pain & Rehab Center

보스톤 통증 클리닉

물리치료 전문의 **윤 창**

Doctor of Physical Therapy **Chang Yoon**, PT, DPT

524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617-731-1004** Fax: 617-731-1001